영어어문교육 *제21권* 2호 2015년 여름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창립 20년사의 역사적 회고와 미래 발전 방향*

임 병 빈
(공주대학교)

Im, Byung-Bin (2015). A history of ETAK for the past twenty years and future developmental perspectiv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1*(2), 135-15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trospect a history of ETAK for the past twenty years and to suggest future developmental perspectives for ETAK and other academic associations in Korea. Since 1994(the founding year of ETAK), ETAK has been tremendously developed through three stages: ⅰ) The beginning stage (1994-2001); ⅱ) the developing stage(2002-2005); ⅲ) the prestigious stage(2006~present). ETAK was founded by KNTC alumni teachers and professors in 1994. Owing to the total efforts of the foundation staffs, ETAK was becoming an academic association with qualified status in 2002, which was proved to be one of candidate journals of citationright by Korea Research Foundation(KRF). And at last in 2005 ETAK Journal was sponsored under the name of citationright by KRF. The number of journal issues published was increased including international issues. However, ETAK faces some essential tasks to challenge and change: First, we should try to be ready for the enrollment of international journal citation. Second, we should hold more meaningful conferences with opening workshops. Third, we should increase financial funds. Lastly, we should execute new requirements such as facilitation of UKETA, regular meetings with primary &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research associations, and excavation of new essential ELT professional academic associations.

[history of ETAK/future developmental perspectives/citationright, ETAK의 역사/미래 발전 방향/학술지 등재]

---

* 본 논문은 임병빈(2014)이 2014 ETAK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A History of ETAK: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 하였던 내용에 기초한 것임.

Ⅰ. 머리말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Th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ETAK)가 지난 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제 지나온 20년의 역동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본 학회는 향후 발전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국내에서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국제적인 위상의 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Brown(2007)이 자신의 저서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의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타 언어습득(SLA)에 관한 정기간행물이 162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어교육을 포함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물이 '쓰나미' 같은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제적인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도 유사한 환경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된 학회총람(1994) 자료에 의하면 영어교육 관련 학회로는 '한국영어교육학회', '한국응용언어학회',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그리고 '한국영어교육회'라는 4개의 학회가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물론 학회총람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학회가 있었겠지만 공식적 기록으로는 그러하다. 그후 현재 시점에서는 영어교육 관련학회가 3배수를 넘어 10여 개의 학회들이 활동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학회들의 숫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도 꾸준히 향상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 성장 배경 요인으로는 국가적인 정책인 '학술지 평가' 사업의 시행에 힘입어 '등재후보 학술지' 단계를 거쳐 '등재 학술지' 인준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국내 학술지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음은 주지의 사실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는 1994년 학회를 창립하여 2002년에 등재후보 학술지를 거쳐 2005년에 등재 학술지로 인준을 받았으며 명실 공히 국내의 영어교육 분야에서 주요 학술단체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2010년을 전후하여 정부의 '학문분야의 국제화'정책과 더불어 이제 학회들은 저마다 국제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학회도 국제적인 인증기관의 DB에 등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역사적으로 조명해봄과 동시에 현재 당면한 상황적 여건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향후의 발전적 미래상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학회 창립 20년간의 회고

1. 학회 창립 20년사

1) 창립기(1994~2001)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는 1994년 8월 15일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중등 영어교사와 대학 교수의 동창회 모임을 기반으로 창립총회와 제 1회 학술대회를 공주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1983년부터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총동창회 행사를 연 1회 8월 중에 모교에서 가져오던 중에 필자가 동창회 임원들에게 학회 활동을 겸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 제안이 동창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1994년에 학회가 탄생되었다.

'학회 회칙'과 '논문투고 규정'을 마련하고 회칙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였다. 임원으로는 당시 총동창회장을 맡았던 충남교육청 김용경 장학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부회장단은 원광대학교 엄정옥 교수, 한남대학교 이상윤 교수, 성환고 이대원 교감 그리고 공주교육청 오양식 장학사로 구성되었다. 총무 이사진은 공주사대 영어교육과 강용구 교수, 최종욱 교수와 필자가 맡았다. 편집이사로는 전북대학교 전병만 교수, 공주대학교 김연승 교수와 서진희 교수가 선임되었다. 한편, 학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용구 교수와 필자는 (주)지학사와 영어참고서 출판계약을 맺고 「하이라이트 고교 영문 독해 시리즈」 전 3권 선인세로 일천만원을 수령하여 전액을 학회에 기부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집필위원으로는 박춘우, 황운연, 김도중, 정하선, 백욱현, 이병구, 이두용, 김일상, 지희순, 박용래, 송해성, 김종성, 노재석, 강진구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강용구 교수와 필자는 감수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당시에 이와 같은 재원 마련을 가능케 했던 배경은 공주사대 영어교육과 출신 현직 영어교사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 전통과 실력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주사대 영어교육과에 1980년대 초부터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한 해에 20명 내외의 대학원생이 배출되어 그 중에서 연구 능력을 소지한 우수한 재원들이 집필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학회의 재정 적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8월 15일 창립 학술대회에서는 2편의 영어교육 현장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고 전북대학교 전병만 교수의 '언어평가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기조강연이 있었다. 당일의 창립 학술대회 및 총회는 173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었고, 총회를 마친 후에 국립공원 계룡산 갑사 입구의 수정회관 리셉션장에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는 모임을 가졌다.

학회와 학술지 명칭의 제정에 있어서 '영어어문교육(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ELLT)'이라고 칭함은 영어교육을 근간으로 삼고 영어학과 영문학을 접목시켜 궁극적으로 영어교육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그 연구결과를 현장교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었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의미가 내포된 '영어어문교육'이라는 명칭을 필자가 제안하였고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8월 5일자로 발간된 학술지 「영어어문교육」 창간호에는 총 8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 투고자로는 임병빈(1995), 이혜경(1995), 최형철(1995), 박찬식(1995), 신상민(1995), 정미영(1995), 박병제(1995)와 손경준(1995)이었다. 학회지 부록으로 「학회 소식」, 「학회 회칙」과 「학회지 투고 요령」이 실렸으며 상업용 광고 후원사로는 한국문화사, (주)문진당, (주)YBM 시사영어사와 (주)WICOM 서부산업이 참여하였다.

학회 창립기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구성에 관한 역사적 개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경 초대 회장이 연임하였고 뒤를 이어 이상윤 한남대학교 교수가 제 3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00년 8월에 고려대학교 박경자 교수가 제 4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학회의 출범은 공주사대 영어교육과 출신 교사들을 모체로 하여 출발되었으나 학회의 학문적 성격과 발전을 위하여 회장을 대학 교수 중에서 선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 4대 회장을 역임하신 박경자 회장 재임시에는 본인이 창립한 범태평양응용언어학회(The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PAAL)소속 회원들이 우리 학회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주요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도 1998년부터 회원 분포의 전국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망라한 대학 교수 중심의 임원진이 조직되었고 학회지 제 5호(1999년 8월 5일 발행)의 임원진 명단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회장단으로는 엄정옥 교수(원광대), 전병만 교수(전북대), 이통진 교수(호서대), 강흥립 교수(경원대), 박희문 교수(배재대)로 구성되었다. 연구 이사로는 나기연 교수(전주교대), 섭외 이사로는 변명섭 교수(제주대), 감사에 김학수 교수(삼척대)가 선임되었다. 편집이사진으로는 김남순 교수(한남대), 연준흠 장학사(충북교육청), 이재희 교수(인천교대), 한상호 교수(경주대), 고 이종희 교수(강원대), 이혜경 교수(공주교대)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학술지 제 5호 발간시기인 1998년부터 자문위원 위촉 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의 자문 위원진으로는 김용경 교장(초대 회장), 박경자 교수(고려대), 이흥수 교수(전남대), 최용재 교수(동국대), 황적륜 교수(서울대), 정동빈 교수(중앙대) 그리고 최재석 교수(충남대)를 위촉하였다. 2000년 8월에 제 4대 회장을 역임하신 박경자 교수의 재임 시에 이르러 학술지 등재 후보 인준 평가를 위하여 제반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본 논문의 학술지 관련 부분(Ⅱ. 2절 참조)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임원진에 관련된 사항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학회 창립의 주역으로 창립

시부터 참여했던 필자를 비롯한 강용구 교수와 최종욱 교수가 부회장단으로 편성되었고 권경원 교수(목원대)와 백낙승 교수(강원대)가 부회장을 맡았다. 전반적으로 임원진의 지역적 분포와 자질을 고려한 선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의 선임을 중요시하여 적절한 선임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우리 학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3인이 임원진에 편성되었으며 연구 실적이 우수한 9명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였다. 당시의 편집위원으로는 김양순(한밭대), 김인표(공주대), 박혜숙(군산대), 성명희(서울보건대), 송해성(전북대), 이정원(충남대), 장경숙(한밭대), 장영준(중앙대), 한혜경(서울대)으로 구성되었고 편집위원장은 필자가 맡았다.

2) 도약기(2002~2005)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학회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학술지 논문 투고·심사·편집·출판과정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거쳐 마침내 2002년에 「영어어문교육」이 등재후보 학술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학회지「영어어문교육」8권 2호의 표지에 '이 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음'이라는 사사 표기가 인쇄되었으며 판권지에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표기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필자의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셨던 박경자 회장님의 화합과 소통의 학회 운영이 학회 발전에 큰 힘이 되었으며 당시의 편집담당 부회장을 맡았던 필자에게 총체적인 학회 실무의 전권을 위임해주셔서 필자는 학회 임원 중에서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의 능력을 소지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임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등재 학술지 인증을 위하여 준비 작업 팀을 구성하여 학술지 평가기준 항목별로 담당업무를 배정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학술지 평가는 '체계 평가'와 '내용 평가'로 이원화 되어있다. 체계 평가 부문에서 우리 학술지에 미비하였던 항목 중에 cyber출판은 교보문고의 '디비피아'를 계약하여 개설해 놓았다. 학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보완하여 관리하였으며 논문 게재의 전국성 분포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논문 게재율을 엄정히 지키고 학회지 출판예정일을 준수하여 발간하였다. '내용 평가'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꼼꼼히 살펴서 편집위원들의 연구업적을 고려한 임원 선임과 확충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학회지의 논문 편집 방식인 APA style을 철저히 준수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논문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논문 심사위원의 수를 편당 3인으로 배정하였다. 논문 심사항목도 수정 보완하여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2004년부터 필자가 제 6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학회발전과 학술지 등재지 인준을 목표로 임원들과 더불어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05년 등재 학술지가 되었다. 이것은 학회 창립 이후 가장 큰 경사였다. 2006년 1월 유성 '만나회관'에서 열린 학회 신년교례회에서 참석한

회원 및 임원들과 함께 등재 학술지로 인준된 경사를 축하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화된 노력을 통하여 국내 영어교육 관련학회의 우수 학회로서 발전적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다짐하였다.

지난 20년 동안의 학회 역사에서 '도약기'와 관련된 발전 배경 요인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추가해보기로 한다. 2000년 초에 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당시로는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에만 사범계열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고 국립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 박사과정이 인가되었다. 따라서 박사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이 우리학회의 학술대회 준비 및 학회 활동 실무에 보조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초에 개설된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 전공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많은 자원들이 학회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한 해에 약 20명씩 입학하여 수료하였는데 대학원생은 현직 영어교사가 대다수이었으므로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에서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타 학회와 달리 영어 수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현장교육과 대학 교수 중심의 이론 연구가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학문과 교육의 만남으로 빚어진 성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회 재정은 여느 학회와 마찬가지로 회칙에 따라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전체 회원들의 연회비 납부 실적만으로는 학술대회 행사와 학술지 출판 및 학회 활동의 활성화에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회 출범 시에 종자돈으로 마련된 일천만원을 기본금으로 하여 조금씩이라도 추가적인 이월금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재정의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학회 재정 회계관리도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재직 교수 전체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다수가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여 평생회비를 납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독지가 한 분의 정성으로 우리 학회 재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독지가 본인께서 익명으로 기부의 뜻을 밝히셨기에 성함을 여기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학회 20년사를 집필하는 필자로서는 그 분의 숭고한 뜻을 항상 마음에 담고 지내왔으며 고마움을 간접적으로 피력해본다. 그리하여 학회 기본 재정의 자산이 이천만원대로 확충되기에 이르렀다.

3) 발전기(2006~현재)

학회 창립기의 시발적 준비과정과 학회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 학회 도약기의 끝자락에 이르러 학술지의 등재지 인준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따라서 학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학술지 편집과 발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연 2회로 개최되어온 학술대회의 규모와 질적 내용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6년 9월에 필자는 제7대 회장으로 연임되어 국내 영어교육 학문

분야에서 이미 입지를 공고히 한 ETAK 학회와 학술지 ELLT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전체 회원 및 임원과 더불어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먼저, 회원의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회원수가 약 500명이 넘었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학회 임원으로 선임하였다. 필자는 타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및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에 능력 있는 인사들을 눈여겨 보았다가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우리 학회 회원으로 영입하는 동시에 능력과 신분에 따라 우리 학회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2007년 6월에는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였다. 'Emerging Issues and Challenges in English Education'이라는 학술대회 주제를 걸고 하와이 대학교의 Richard Day(2007)교수의 'Extensive Reading in EFL Curriculum' 기조강연을 비롯한 두 가지 주제의 colloquium (English Education Innovation/How to Empower English Teachers in Asia)이 열렸으며 총 55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필자가 1994년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를 창립하면서 당시에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회원 학회로 우리 학회를 가입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1994)에서 발간된 표 1의 학회총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어교육 관련 학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를 비롯하여 총 5개 학회가 등재되어 있었으며 오늘날의 영어교육 관련 10여개의 유수학회로 성장하기에는 미미한 학회 발전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표 1

국내 영어교육 관련 학회 조직 일람표(한국학술진흥재단, 1994)

학회명	회원수	설립연도	정기간행물	정회원 자격	국제 교류 현황
한국영어교육학회	473	1964	영어교육	석사학위이상 영어교육 종사자	미국의 5개국 학술지 배부 및 연사초청 강연
한국영어영문학회	1650	1954	영어영문학	영어영문학 전공의 교육자	미국, 일본 학술지 교환
한국응용언어학회	300	1978	응용언어학	석사학위 이상	국제 응용언어학회 (ALLA)와 유대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180	1994	영어교육 연구	석사학위 이상, 중등영어교사	
한국영어교육회	336	1952	영어교육	영어교사 및 교수	

전국적인 영어교육학회로는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있었고 부산·경상도 지역에 오늘날의 팬코리아 영어교육학회의 모체인 부산영어교육학회가 있었으며 전라도 지역에 오늘날의 글로벌영어교육학회의 모체인 호남영어교육학회가 있었다. 우리 학회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전국의 영어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공주사대 출신의 대학 교수와 중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태동하여 지역적으로는 충청도와 중부권을 근거지로 하여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해왔다. 지난 2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영어교육 분야의 학문연구와 현장교육에 기여한다는 학회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터에 전문학회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2007년에는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장의 신분으로 필자가 국내의 영어교육 관련 학회장들에게 한국영어교육학회총연합회(The United Korea English Teachers Associations: UKETA) 결성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현대영어교육학회(회장 현태덕),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회장 최수영)와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회장 임병빈)가 회원학회로 구성된 UKETA가 결성되었다. UKETA의 결성 취지는 회원학회의 상호간 학술교류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친목 도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두었다. 그후 2009년에 영상영어교육학회(이자원 회장), 영어언어과학회(회장 정동빈)와 조기영어교육학회(회장 정동빈)가 회원학회로 합류하였다. UKETA 결성 이후로 회원학회의 학술대회 행사에 상호 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으며 회원들간의 학술지 논문 투고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호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MB정부 초기에 제기되었던 '영어공교육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영어공교육강화단」을 방문하여 단장에게 정책 시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 사항을 전달한 바도 있다. 또한 아시아 영어교육학회(Asia TEFL) 이효웅 회장과 함께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제시를 위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8년 당일의 세미나에서는 국내의 영어교육 관련학회 중에서 뜻을 같이 했던 6개 내외의 학회가 주요 정책 이슈별로 분담을 맡아 정부의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의와 강연이 진행되었다. ETAK에서는 '영어를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TEE)의 실제와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를 맡았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주도의 행사 형태가 아닌 학회 주관으로 한국의 영어교육 현안 문제에 관하여 공·사교육을 포함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활기차고 의미있는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성격의 모임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크지만 아쉽게도 일회성으로 자취를 감춘 상황이 안타깝다.

학회 홍보와 학술지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의 교육·

연구용 자료 제공을 위하여 2005년에 학회총서(전 3권)를 발간하였으며 2008년에 다시 학회총서(전 5권)를 간행하였다. (주)에듀케이엘씨 김영이 사장의 후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당초의 출간 목적인 학회 홍보와 교육·연구용 자료 제공은 달성되었을지라도 아쉽게도 부수적으로 총서판매를 통한 학회 재정수입 효과는 미미하였다.

민찬규(한국교원대) 교수가 제8대 회장, 이은표 교수(을지대)가 제9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송해성 교수(공주대)가 제10대 회장으로 부임하였고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종복 교수(목원대)가 회장을 맡고 있다. 제10대 회장을 역임한 송해성 교수는 학회 초창기부터 학회 재원 마련의 기틀을 다진 영어독해 참고서인 *Touch Down Series* 제작 및 편집에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후 총무이사를 거쳐 편집담당 부회장으로서 학술지 등재 평가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등재지 인준을 받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3년 등재 학술지 연속 평가 작업도 성공리에 마무리지었다.

2012년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영어교과서 검정제도가 '교과서 인증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영어교과서 감수 기관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중학교 영어 교과서 인증평가 감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작업은 송해성 교수, 윤상돈 박사, 변향숙 박사, 박지민 박사 등이 참여하였고 필자는 감수 대표를 맡았었다. 한편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얻은 감수비의 일부를 학회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2012년에는 Howatt와 Widdowson (2004)의 *A History of English Language Teaching*을 한국 문화사에서 번역판으로 출간하였다. 많은 영어교육 관련 번역서가 있었지만 '영어교육의 역사'라는 연구서를 번역한다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간주되어 우리 학회의 임원진 중에서 송해성 교수, 고 이종희 교수, 강문구 교수, 김경자 교수, 진정숙 교수와 필자가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번역판의 인세 전액을 학회에 기부한 바 있다.

끝으로, 2014년 6월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the EFL Context'라는 학술대회 주제로 필자는 'A History of ETAK: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제목의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하와이 대학교 Richard Day 교수는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the EFL Context' 기조강연을 하였고 Nanyang 공과대학의 Willy Renandya 교수가 'How Can We Make CLT Work Better in EFL Contexts?'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총 57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당일의 학술대회는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공주대학교 영어교육연구소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주관

하였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주)잉글리쉬 무무와 공주대학교가 후원하였다.

2. 학술지

1995년 8월 5일자로 「영어어문교육」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당시에는 편집이사 3인이 전부였으며 별도의 편집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던 형편이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연 1회 학술지가 발간되었으며 제 5호(1999년) 발간 시부터 편집이사진의 숫자를 확대하였고,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투고 규정」,「APA style양식 안내」등을 수정·보완하여 학회지 부록에 싣고 보다 양질의 논문이 투고 게재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한편 제7권(2001년)부터는 전국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진과 편집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여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 업무의 충실성과 엄정성을 기하였다. 또한 제7권부터는 게재된 논문의 영문논문 비율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술지의 발간횟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권(2001년)부터 제8권(2002년)은 연 2회로 발간되었으며 제9권(2003년)부터 제10권(2004년)까지는 연 3회로 발간되었다. 제11권(2005년)부터는 연 4회 발간해 계간지(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간되어 오고 있다.

2005년 등재 학술지로 인준된 학술지 「영어어문교육」의 국제화 보급을 위하여 제11권(2005년)부터 제16권(2010년)까지는 제2호(여름호)를 영문판 학술지(international issue)로 발간하였으며, 제17권(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 권의 제1, 3호를 영문판 학술지로 발행함으로써 국내·국외의 영어 원어민 또는 공용어 사용자들에게 한국의 영어교육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는 그동안 「학술지 등재후보·등재지」인준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 및 「학술지 연속평가」 과정을 통하여 우수 학술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규정」, 「투고 규정」,「윤리 규정」 및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와 심사방법」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게재 논문의 독창성 제고, 학술적 가치와 기대효과 부여, 연구방법론적 타당성 및 체제의 적절성 부합 등을 목표로 객관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 우수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3. 학회 총서 발간 현황

학술지의 발간과 더불어 ETAK의 홍보와 학술지(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되었던 분야별 주요 논문 연구물을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행본 형식의 학회 총서 발간 사업을 실시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된 학회 총서 3권의 현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학회 총서 발간 현황(2005년)

권별	편저자	총서명
1	임병빈	영어 교수방법론 Ⅰ
2	임병빈	영어 교수방법론 Ⅱ
3	민찬규 송해성	영어 멀티미디어 교수방법론

표 3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영어교육 총서 발간 현황(2008년)

권별	편저자	총서명
1	임병빈	영어 듣기·말하기 교육론
2	양은미	영어 읽기 교육론
3	김현진	영어 쓰기 교육론
4	임병빈 강문구	영어 평가론
5	임병빈 송해성	초등영어 교육론

2008년에 발간된 학회 영어교육 총서 전 5권의 구성을 간추려 소개해 보기로 한다. 먼저, <머리말>의 첫 단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는 1994년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문적 이론과 교육 현장의 실제를 접목시켜 다방면으로 총체적인 노력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이제 우리 학회는 유능한 학자, 실력 있는 초·중등 영어 교사, 교육전문가 및 교육행정 담당자들을 망라하여 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로서 국내 영어교육 관련학회 중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현실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희망과 긍정적인 요소도 그 안에 함께 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숙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금번에 발간된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총서가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임병빈, 2008, pp. i ~ii에서 재인용)

위 <머리말> 내용을 보면 총서 발간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한편, 총서의 각 권별 구성은 [게재 논문의 주요 내용]편에서 해당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결론)의 개요를 싣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어서 각 권별로 게재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체제이다.

4. 자매학회 활동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는 2000년 초기에 자립적인 학회 기반을 세우면서 학술지 등재 후보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2005년에 학술 등재지 인준 절차를 통과하였다. 이 무렵부터 국제적으로는 범태평양응용언어학회(PAAL) 그리고 아시아멀티미디어영어교육학회(Asia CALL)와 학술 교류활동을 맺고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ETAK회원들이 자매학회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 왔다. 특히 PAAL과의 학술활동 발표에서 국제 및 국내 행사에 ETAK의 많은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국내 자매활동 상황에 있어서, ETAK은 현대영어교육학회(MEESO),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KEES), 조기영어교육학회(CEESK), 한국영어언어과학회(ELSAK), 영상영어교육학회(STEM), 대한영어교육연구학회(ETRAK) 및 중앙영어영문학회(JELLA)와 실제적인 학술교류 활동을 전개해 왔다(표 4 참조). 현대영어교육학회와는 필자가 ETAK회장으로서 현태덕 전임회장(안동대) 그리고 영어교과교육학회장이었던 최수영 회장(교원대)과 함께 몇 차례 회동을 거쳐 상호간 학술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그후 정동빈 회장(중앙대)이 창립한 영어언어과학회와 조기영어교육학회와도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박순봉(건국대)교수가 중앙영어영문학회장으로 재임시에 ETAK과 JELLA 사이에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공동 학술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이자원(국민대)회장과 필자와의 친분관계 속에서 양 학회

회원들의 상호간 학술지 논문투고 및 학술대회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해오고 있다.

표 4
ETAK의 자매활동 학회 현황

구분	학회명	자매결연 당시 학회장
국제학회	범태평양응용언어학회(PAAL)	박경자(전 고려대)
	아시아멀티미디어영어교육학회(Asia CALL)	정두완(전 경주대)
국내학회	현대영어교육학회(MEESO)	현태덕(안동대)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KEES)	최수영(전 교원대)
	조기영어교육학회(CEESK)	정동빈(전 중앙대)
	한국영어언어과학회(ELSAK)	정동빈(전 중앙대)
	영상영어교육학회(STEM)	이자원(국민대)
	대한영어교육연구학회(ETRAK)	임병빈(공주대)
	중앙영어영문학회(JELLA)	박순봉(건국대)

Ⅲ.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1. ETAK의 과제

1) 우수학술지 · 국제학술지 수준의 등재 준비

ETAK의 학술지「영어어문교육」은 199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2년에 '등재후보 학술지'를 거쳐 2005년에 '등재 학술지'로 인증되었다. 영어교육 분야의 국내 학술지 중에서는 일찍이 선두 그룹의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가 되었으며 연간 4회 학술지를 발간하고 그 중 2회는 영문판으로 출간되어 왔다. 투고 논문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체계적인 편집절차를 통하여 가능한 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터에 「영어어문교육」은 국내의 권위 있는 영어교육 분야 학술지로서 인정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문 발전을 위한 학회 자체의 목표와 더불어 정부와 관계기관(한국연구재단)의 우수 학술지 발행을 위한 목표와 평가 수준에 변화의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등재 학술지의 연속평가' 단계를 질적 평가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등재 학술지 자격을 취득한 학술지 중에서 '우수학술지' 인증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필자가 알기로는 영어교육 분야의 학술지 중 우수학술지로 인증된 국내의 학술지는 아직 전무한 실정인 것 같다. 따라서 ETAK은 그 동안 쌓아온 등재 학술지로서의 탄탄한 저력과 편집위원진을 비롯한 전체 임원진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수학술지'로 등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평가기준의 모든 항목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의 '우수학술지' 등재 목표와 함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학술지' 등재를 위한 종합적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하겠다. 이에 관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참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수학술지(국제학술지) 등재준비위원단'을 결성하여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사안별 업무를 배정한다. 둘째,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부서와 우수학술지(국제학술지)로 등재된 학회로부터 준비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등재요건 점검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영어어문교육'의 <자체심사 평가표>를 마련하여 부족한 항목들의 보완방법을 가동시켜 전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셋째,「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3~5년간의 단기·중기 연차 계획으로 과업 수행목표를 세우고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대비한다.

2) Workshop 개설 및 운영

ETAK은 창립 후 수년 동안 연간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다가 연 1회로 학술대회 개최횟수를 줄였다. 현재 국내의 영어교육 관련 타 학회들도 대부분 연 1회로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하계·동계 방학 기간 중에 Workshop 개최의 필요성이 있으며, Workshop의 주제는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당면한 최근 이슈 또는 연구방법론적 공통 관심사를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발행된 영어교육 연구저서의 소개와 논의 등이 될 수 있다. 첫째 사항인 최근 이슈에 관한 Workshop의 경우에는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의 공청회 모델을 택하여 전문학자, 초·중등 영어교사, 영어교육 담당 행정가(연구사/장학사), 대학원생 및 사교육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의미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한 대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ETAK 집행부에서는 금년부터 Workshop 개최와 운영에 관한 심의를 거쳐 연중 1~2회의 의미 있는 학술 활동이 학술대회와 더불어 전개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3) 홈페이지 자료확충과 체계적인 관리

ETAK홈페이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보완작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홈페이지의 컨텐츠의 내용과 관리체계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개선점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첫째, 국내·외의 영어교육 관련 유수 학회 중에서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 컨텐츠를 샘플링하여 새로운 구성체계를 고안한다. 둘째,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영문판>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삼고, 내용 항목의 필요에 따라 <한글판>을 병용한다. 셋째, '게시판·자료실'의 내용들이 학회와 관련한 사항들이 발생되는 시점에 비추어 즉각적으로 탑재되어 예고적으로 공지되거나 사후 자료로서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홈페이지 관리 담당부서를 임원진에 편성하여, 부서장은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3명 내외의 담당이사를 두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4) 재정 확충

매사에 있어서 하나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 학회 업무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회를 이끄는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의 고민 중 하나는 재정확보이다. 학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수입과 논문 게재와 관련된 게재료 납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다. 기타 수입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각 학회에 지원되는 학술지 발간 지원비와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가 있으며 학술대회 개최 시에 후원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있다. 또한 학술지의 홍보 광고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나 학회 회원과 인맥이 있는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기탁받을 수도 있다.

ETAK은 본고의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학회 창립자들의 성금을 밑알로 하여 학회 재정이 가동되었고 그후 회원들의 회비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금으로 기본적인 학회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매년 학술대회 개최 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인맥을 통한 독지가와 영어교육 관련 사업가들로부터 학술대회 개최 후원성금을 보조 받아 행사를 실시해왔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학회의 총자산 중 기본 예치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고 2년마다 임원 교체 시에 이월금을 인수 인계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이어왔다.

ETAK이 국내 관련학회 집단에서 선두 주자로서의 학회 위상을 이어감과 동시에 '우수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 등재 과정을 통해 발전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과업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재정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ETAK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학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의 회비 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증액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학술지 발간을 위한 노력과 수준 높은 학술대회 개최 행사를 실시해야 하겠다.

더불어 ETAK의 학술활동을 통한 영어교육의 학문 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다.

5) 학회 임원진의 선임과 책무

학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원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TAK도 예외 없이 현재 선임된 회장단을 비롯한 각 부서별 모든 이사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ETAK의 설립 목적과 주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학회의 발전적 미래가 기대될 수 있다.

ETAK은 현재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단 8인(총괄/편집/연구/국제/홍보/운영/출판/정보), 총무이사 그리고 재무이사로서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구/국제/홍보/운영/출판/정보의 6개 분과 단위로 각각 12~15명의 이사진과 편집위원 및 편집이사를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의 수가 120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임원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다.

외형상으로 보면 ETAK의 임원진 조직 분과 상으로 타 학회와 유사한 구성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각 분과 단위로 담당 이사진의 수를 확대하여 다수의 임원진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편집위원회에 '간사', '편집위원', '편집이사'를 각각 다수 선임하여 운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학회 전반적으로 주요 사안들이 기획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책임 맡은 일들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그 총화로써 출현되는 과업의 성과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부서별 역할의 충실성과 학회 전체의 역할 사이에 유기적인 통합과 통솔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이에 관한 참고 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임원 선임 시에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할 수 있도록 회장은 학회 자문위원단과 협의한다. 둘째. 실무능력 위주의 경륜 있는 인사를 분과 단위 부회장단으로 선임한다. 셋째, 부회장단은 각자 맡은 부서의 유능한 담당이사들을 추천한다. 넷째, 회장은 새로 구성될 임원진 예정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임원진을 최종 선임한다. 다섯째, 선임된 임원은 자신의 학문적 발전과 학회 발전을 위해 부여된 학회의 분과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한다.

2. 영어교육 관련 학회의 공동 과제

1) 한국영어교육학회총연합회의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어교육 관련 학회는 그 수가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개별 학회마다 나름대로 활발하게 학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등재후보 학술지'와 '등재 학술지' 수준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는 발전적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러나 영어교육 관련 학회의 총체적인 모임으로서의 학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개별 학회 또는 학회와 학회 간의 자매학회 형태로 학술대회 참가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활동이 고작이었던 형편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필자가 ETAK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시기 중 2007년에 한국영어교육학회연합회(UKETA)를 출범시켰다. UKETA 회칙에 따라 창립 원년에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현대영어교육학회 그리고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의 3개 학회 연합학회로부터 출발하여 그 후 영상영어교육학회, 한국영어언어과학회, 한국조기영어교육학회, 대한영어교육연구학회가 함께 활동을 해왔다. 2009년에 UKETA 회장으로서 필자는 UKETA에 가입되지 않은 국내 영어교육 관련 학회장들에게 전자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영어교육 관련학회들의 연합회 활동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함께 동참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가입 학회들이 대부분 자체학회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입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영어교육학회 총연합회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2008년 4월 서울 소재 삼성크레듀 빌딩에서 열렸던 「영어공교육강화정책토론회」가 유일하게 국내의 여러 학회 대표자 중심으로 전개된 공동 토론회 행사로 기억될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상황에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해왔으며 현재에도 당면한 많은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MB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영어공교육강화정책" 중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확대', '인증제 교과서' 등의 문제와 '사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 이슈, '영어임용고사 출제방식', 'NEAT와 수능 영어시험', '「영어과 교육과정」과 현장 영어수업의 상충'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 학회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학회의 본연의 임무는 연구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구가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영어교육 현장인 한국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당면한 각종 영어교육의 중요한 이슈와 정책들에 대하여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이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전병만과 송해성, 2014).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특정 학회로서는 불가능하므로 관련 학회들이 모두 결집된 영어교육학회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자문활동, 공청회, 협의, 또는 요청 공문 전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겠다.

따라서 거국적인 학술단체로서의 위상 정립과 그에 부합한 내실 있는

활동이 가능한 한국영어교육학회총연합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2) 초.중등 영어교사연구회와의 교류활동

영어교육 연구는 '이론과 실제'의 양 축 사이에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때 보다 높은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학교의 영어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주체인 영어 교사와의 교류활동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주체인 교수들에게 연구의 좋은 소재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대회 시에 논문 발표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대부분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에 편중되어 있다. 학술지 논문 게재는 현실적인 여건상 초.중등 교사가 참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학술대회 시에 '구두 발표', '포스터세션 발표', 또는 '토론자' 등의 형태로 초.중등 영어 교사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학술 행사가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각 학회들은 저마다 초·중등 영어교사 연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교류활동이 요청되고 그 결과로 그림 1과 같이 영어교육 연구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영어교육 연구의 활성화 모델



3) 세부 전문학회의 확충

학문분야의 전문화 경향과 관련하여 이제 한국의 영어교육 학문영역에서도 세부 학문분야에 따라 전문학회의 필요성이 있다. 명칭만 달리하고 특수성이 없는 새로운 학회의 탄생보다는 세부 전문분야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학회들이 출현하여 전체적으로 한국의 영어교육 연구를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전문학회 중에 '영상영어교육학회', '한국멀티미디어 영어교육학회', '한국영어교육평가학회',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한국중등 영어교육학회'가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어 사용기능 연구 중심의 학회가 필요하며 '영어 교사 연수', '영어교육 연구방법', '대학 영어교육', '영어과 교육과정 연구', '영어교육 정책', '영어 교과서 연구' 등의 세부 전문학회가 설립되어 영어 교육의 기본적인 구조와 더불어 핵심적 이슈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동력을 갖추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학회의 연구 동력 시스템을 가동 시킨다면 한국에서 영어교육의 총체적인 발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영어교육 관련 학회의 새로운 탄생은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전문성을 갖춘 설립 목적에 주목하기를 기대해본다.

4) 학문 후속세대 양성 활동

각 학회와 더불어 학회연합회는 학문 후속세대(학부/대학원생)의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학회 활동에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반영시켜 학술 활동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겠다. 첫째, 학술대회 또는 Workshop 개최 시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참석시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학술대회 개최 시에 대학원생 논문발표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술 발표를 권장하고 우수 발표자에게는 표창하는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제'를 채택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각 대학 및 대학원 영어교육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단일 대학 또는 거점대학 단위[1]로 영어교육 관련 특강을 실시한다.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활동들을 학회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미래에 학문 발전의 주역이 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일도 학회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영어문교육학회의 학회 창립 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창립

[1] 거점대학 단위의 의미는 학생 수의 규모가 큰 대학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대전 지역의 경우에 충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각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충남대에 모여 특강에 참석할 수 있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창립기(1994-2001년), 도약기(2002-2005년) 및 발전기(2006-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학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개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ETAK의 학술지 「영어어문교육」발간의 발전 과정과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학회 총서의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ETAK과 자매학회 활동을 맺어온 역사적 발자취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ETAK의 20년사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8월에 창립된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전국의 현직 영어 교사와 대학 교수 중심으로 학회가 조직되었다. 학회 창립기의 초기 시기에는 현장 중심의 영어교육 관련 이슈들이 학술대회 주제이자 학술지 논문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학술지의 편집방식과 논문심사 절차, 투고 규정 등이 미흡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도약기에 이르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마침내 2005년에 '등재지'로 인준받았다.

등재지로 인준된 ETAK은 회원수의 규모, 수준 있는 학술대회 개최 활동, 국제호(영문판) 연 2회 발간을 포함한 계간지 논문집 발행, 자매학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결실로 학회연합회(UKETA) 창립 및 활동 등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터에 오늘날 국내의 영어교육 학문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ETAK이 향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관점에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우수학술지(또는 국제학술지)로의 발전을 위해 등재 준비에 힘써야 한다. 둘째, 정기 학술대회와 더불어 방학기간을 이용한 Workshop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충실한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과 체계적 관리가 요청된다. 넷째, 학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회 임원진의 선임과 책무가 막중하므로 이에 관한 신중한 검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ETAK의 발전 방향과 동시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국제화 사회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있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영어교육 관련 학회들의 공동과제도 제안해보았다. '영어교육학회총연합회'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초·중등영어교사연구회와의 교류활동도 보다 긴밀하게 활성화시켜야 하겠다. 또한 앞으로 영어교육 연구의 세부분야를 연구하는 전문학회가 확충되어야 하는 동시에 학문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 활동에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다.

이와 같이 ETAK의 20년사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대안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국내의 타 영어교육 관련 학회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영어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이정표 몇 가지를 제안해보았다. 끝으로 ETAK과 더불어 국내의 관련 학회들이 필자가 본고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참조하여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학회 저마다의 성찰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현진(편저). (2008). *영어 쓰기 교육론: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총서3*. 서울: ㈜에듀케이엘씨.

박병제. (1995).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영작문지도법. *영어어문교육, 1*, 159-188.

박찬식. (1995). 영어청해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지도 방안. *영어어문교육, 1*, 69-108.

손경준. (1995). *Dream Girl*에 나타난 표현주의, 사실주의, 연극적 오락성의 연구. *영어어문교육*, *1*, 189-211.

신상민. (1995). Pop Song을 이용한 고등학생의 영어 청해력 향상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1*, 109-128.

양은미(편저). (2008). *영어 읽기 교육론: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총서2*. 서울: ㈜에듀케이엘씨.

이혜경. (1995). 아동의 음절습득 원리. *영어어문교육, 1*, 21-42.

임병빈. (1995). 이론과 실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학습. *영어어문교육, 1*, 1-20.

임병빈(편저). (2005). *영어교수방법론 I :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총서1*. 서울: ㈜에듀케이엘씨.

임병빈(편저). (2005). *영어교수방법론 II: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총서2*. 서울: ㈜에듀케이엘씨.

임병빈(편저). (2008). *영어 듣기·말하기 교육론: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총서1*. 서울: ㈜에듀케이엘씨.

임병빈, 강문구(편저). (2008). *영어 평가론: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총서4*. 서울: ㈜에듀케이엘씨.

임병빈, 송해성(편저). (2008). *초등 영어 교육론: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총서5*. 서울: ㈜에듀케이엘씨.

전병만, 송해성. (2014).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9*(2), 97-126.

정미영. (1995).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정의적 요인과 교사의 역할. *영어어문교육, 1*, 129-158.

최형철. (1995). 영어학습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영어어문교육, 1*, 43-68.
한국학술진흥재단. (1994). *학회총람*.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Byung-Bin, Im. (2014). A history of ETAK: The past, the present and future. In ETAK (Ed.), *Proceedings of 2014 ETAK International Conference* (pp. 1-3). Daejeon: Boseong.
Day, R. R. (2007). Extensive reading in EFL classroom. In ETAK (Ed.)*, Proceedings of 2007 ETAK International Conference* (pp. 13-18). Daejeon: Boseong.
Day, R. R. (2014).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the EFL context. In ETAK (Ed.)*, Proceedings of 2014 ETAK International Conference*(pp. 9-13). Daejeon: Boseong.
Howatt, A. P. R., & Widdowson, H. G. (2004). *A history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nandya, W. A. (2014). How can we make CLT work better in EFL context? In ETAK (Ed.)*, Proceedings of 2014 ETAK International Conference* (pp. 4-7). Daejeon: Boseong.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임병빈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 영어교육학과
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56(신관동 182)
Email: rainbow@kongju.ac.kr

Received in April 15th, 2015
Reviewed in May 26th,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ne 5th, 2015